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7.(화) 12:00
(지 면) 2026. 4. 8.(수) 조간

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,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키운다!

-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체계 개편으로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강화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‘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’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.
- 2005년 도입된 ‘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’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,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.
-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·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.
- 이번 개편은 ▲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▲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▲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.
-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.
- 훈련 상황을 정상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운 극한상황까지 고려하고, 광역 단위 대규모 재난을 가정해 단일기관 차원의 훈련을 넘어 인접 지방 정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연계훈련을 확대한다.
- 이러한 중점 추진사항을 훈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, 훈련 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위기관리매뉴얼 개선 등 즉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.

-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훈련(5.11.~22.)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(3.26.)했으며, 향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에서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-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“재난 훈련과 위기관리매뉴얼, 그리고 실제 대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, 훈련 성과가 실질적인 재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	책임자	과 장	임충현 (044-205-5291)
		담당자	서기관	하손숙 (044-205-529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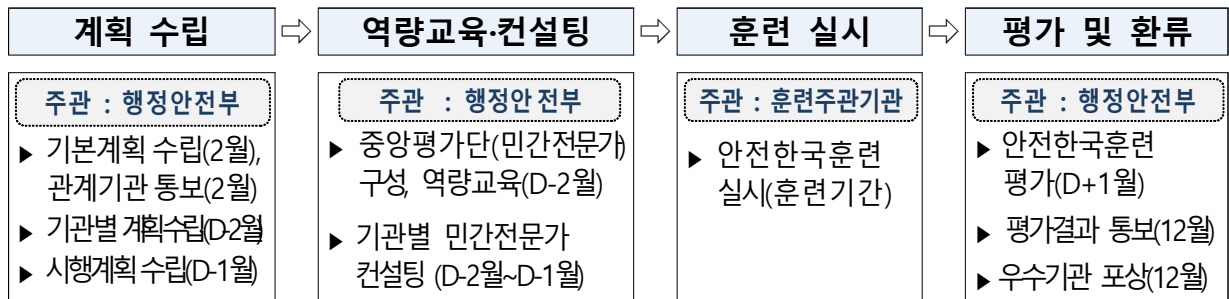
- (훈련목적) 국가 재난관리 조직의 현장 대응 능력 확대·강화
- (훈련기간)
 - (본 훈련) 상반기('26.5.11.~5.22.), 하반기('26.10.19.~10.30.)
 - (시범 훈련) 상반기('26.4.20.~5.1.), 하반기('26.9.7.~9.18.)

<주요 훈련 유형>

상반기(5.11.~5.22.)	하반기(10.19.~10.30.)
■ 풍수해, 산사태, 지진, 화재(다중밀집시설 30층이상 고층건물), 철도사고, 화학물질유출, 선박사고 등	■ 산불, 도로터널사고, 경기장·공연장 인파 사고, 감염병, 가축질병, 폭설·결빙 등

※ 최근 2년('24~'25년) 특별재난지역(호우·태풍·산불) 선포 시·군·구(43개)는 해당유형 의무 선택

- (훈련기관) 336개 기관(중앙부처 24, 시·도 17, 시·군·구 228, 공공기관 ^{중앙}56·^{지방}11)
- (훈련 추진절차)



- (중점 추진사항)

구분	기존('25년)	개선('26년)
시나리오	정상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	대규모, 동시다발, 광역확산 등 극한상황 을 고려한 훈련
훈련모델	▶ 통상적 기관 합동훈련	다양한 방식의 통합연계훈련모델 을 개발·확산
국민참여	대피·자원봉사 등 직접 참여를 권장하나, 여전히 참관 수준	일반국민, 안전취약계층, 이통장등을 자원봉사 또는 협력자로 역할 부여 및 실질적 대피훈련
재난유형	소방 협조가 용이한 화재훈련만 매년 반복	3년 이내 동일 재난유형 훈련 반복 실시 감점
훈련환류	▶ 당해년도 단절적 환류체계	▶ 훈련-문제점 발굴-개선계획- 이행점검 방식의 선순환적 환류체계 구축